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유 은 혜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강경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유은혜

# 인 준 서

유은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 대상자는 인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지적장애아동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5명과 통제집단 5명으로 구분하여 무선배치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16년 3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주 2회, 50분 세션으로 총 14회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측정 도구는 ‘화용적 능력 평가’와 ‘의사소통태도 평가 척도표’를 사용하여 노래 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음악치료 종료 후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Mann-whitney U 검정, 순위 공변량분석(Ranked ANCOVA), 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s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화용적 능력( $F(1, 8)=11.09, p <.05$ )과 의사소통 태도( $F(1, 8)=11.99, p <.01$ )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 <.05$ )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05$ ).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능력 및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b>II. 이론적 배경</b> .....	5
1. 지적장애아동.....	5
1) 지적장애의 정의 및 분류 .....	5
2) 지적장애의 원인 .....	5
3) 지적장애아동의 언어 특성 및 화용적 특성 .....	9
2. 노래중심의 음악치료 .....	14
1) 노래 부르기와 언어 .....	14
2) 언어발달을 위한 음악치료 .....	15
3)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노래 활동 .....	17
<b>III. 연구방법</b> .....	20
1. 연구대상 .....	20
2. 검사 도구 .....	22
1) 화용적 능력 평가 .....	22

2) 의사소통태도 검사 .....	22
3. 연구 설계 및 절차 .....	22
1) 연구설계와 방법 .....	22
2) 연구절차 .....	23
3) 관찰자간 신뢰도 .....	24
4) 음악치료 프로그램 구성 .....	24
4. 자료 분석 .....	31
<b>IV. 연구 결과 .....</b>	<b>32</b>
1. 일반적 특성 .....	32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	33
3. 화용적 능력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 .....	33
4. 의사소통 태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	35
<b>V. 결론 .....</b>	<b>37</b>
1. 결론 및 논의 .....	37
2. 제언 .....	40
<b>참고문헌 .....</b>	<b>41</b>
<b>부록 .....</b>	<b>48</b>
<b>ABSTRACT .....</b>	<b>60</b>

## 표 목 차

<표 III-1> 실험집단 정보.....	20
<표 III-2> 통제집단 정보.....	20
<표 III-3> 연구설계 .....	23
<표 III-4> 음악치료 프로그램 한 회기 구성 .....	25
<표 III-5> 음악치료 프로그램.....	26
<표 IV-1> 일반적 사항.....	32
<표 IV-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	33
<표 IV-3> 화용적 능력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	34
<표 IV-4> 화용적 능력에 대한 Ranked ANCOVA 검정.....	34
<표 IV-5> 화용적 능력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	34
<표 IV-6> 의사소통태도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	35
<표 IV-7> 의사소통태도에 대한 Ranked ANCOVA 검정 .....	36
<표 IV-8> 의사소통태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	36

## 그림 목 차

<그림 IV-1> 화용적 능력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	35
<그림 IV-2> 의사소통태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	3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사소통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언어 자극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상호과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적장애아동은 낮은 지적능력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김기욱, 2007; 전병운, 1994; 이소현, 1999). 이처럼 지적장애아동들은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곤란을 겪게 되어 언어의 사회적 측면인 화용적 의사소통에서도 문제를 보인다.

화용론의 이론중 화행이란 인간이 언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도나 주장, 목적, 믿음, 소원, 감정, 진술 등을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화행은 말소리, 음절, 단어, 문장을 이용하여 발화된다. 지적장애아동은 대상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발화 행위, 행위를 정당하게 요구하기, 주장하기, 부정하기, 정보 진술, 필요한 정보 요구, 상대방을 부르기, 체험한 사실을 시간적 순서에 맞게 말하기, 규칙 순서의 8개의 화행 중에 절반 정도의 규칙을 수행하지 못한다(Searle, 1969; 전병운, 조유진, 2001, 재인용). 또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의사소통을 보이며 좀 더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적장애아동은 언어 발달이 느리고, 이해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 기술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즉 언어의 사회적 사용인 화용적 측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나수화, 정은희 2006).

또한 아동은 의사소통 시 완전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더라도 화용적 측면의 언어능력이 지체되어 있을 경우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적절한 언어적 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렵다(권주석, 2015). 따라서 아동이 속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화용적 언어요소는 친구들과 인사를 하는 일상적인 소통 과정에서도 어떤 표정을 띠고 어떤 말을 건네는가 하는 비언어적 요소를 포함한다. 그리고 친구가 말을 건넬 때 적절히 반응하고 관련 있는 말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화용적 언어 능력의 제스처가 매우 중요하다(김재리, 최소영, 2015).

의사소통 영역은 화용론·의미론·구문론/형태론·음운론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화용론이 실제 상황에서 상대방에 의하여 쓰이는 언어의 사용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의도나 목적을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중요한 영역이 된다. 화용론은 눈 맞추기, 얼굴표정, 신체동작, 말차례 주고받기, 의사소통 의도, 명료화 요구하기와 명료화하기, 주제 다루기, 공간학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Kumin, 1994: 김경신, 황보명, 2010 재인용).

최근 아동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의 추세는 음운, 구문, 의미 발달에서 사회적 측면인 화용적 의사소통으로 변화되고 있다(김화수, 박정식, 박지혜, 2014). 화용적 의사소통을 조사한 김화수, 박정식, 박지혜(2014)의 연구에 의하면 지적장애아동이 일정수준의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에서 특히 어려움을 보이고, 어휘 및 구문 능력이 향상되더라도 발달속도에서 이야기 구사능력이 느리기 때문에 언어 발달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된다고 한다. 나수화, 정은희(2006)는 지적장애아동이 소극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사회적 지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 의사소통의도의 빈도가 정보요구하기, 부정하기, 명료화 요구, 경고하기, 농담하기 순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안기숙, 유은정(2010)은 발달장애아동들이 유치원에서 흔히 접하는 다양한 노래를 활용한 통합적 활동프로그램으로 어휘력과 화용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음악치료에 노래를 사용한 Seybold(1971)와 Harding & Ballard(1982) 연구에서는 노래가 자발적인 언어 표현을 자극·촉진·강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지적장애 아동으로부터 보다 자발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사와 멜로디가 있는 노래는 언어 표현에 매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주제가 친숙하며 부르기 쉽고 발음하기 쉬운 단어들로 다듬어진 여러 가지 유형의 노래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지적장애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 매우 효과적이다(백운찬, 1997). 즉 반복되는 노래 가사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억력은 대상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자극을 일으켜 다음에 이어질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 지적장애아동의 언어발달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노래 가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리듬이나 멜로디, 프레이징과 같은 음악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허인숙, 2000). 이처럼 노래 부르는 것은 의사소통 중 언어표현력 발달을 유도하는데 유용하다. 장애아동의 경우 노래 부르는 발성하기 쉬운 자세와 호흡을 유지하고, 가사의 발음을 반복적으로 소리 내게 함으로써 발음의 명료도나 발화의 길이, 발화속도를 향상시킨다(김진선, 2004; 노혜선, 1999; 박소연, 2004). 이와 같이 노래 부르기 활동은 자연스럽게 아동의 언어이해력과 언어표현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인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Lim(2010)에 따르면 단어를 포함한 간단한 노래 구조로 음악훈련을 받은 발달장애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상황에 맞는 언어표현력과 적절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측면의 문제를 설명하는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지만, 음악치료를 중재로 한 화용적 측면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노래중심의 음악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의사소통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음악치료의 치료적 기법들을 응용, 재구성한 노래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전후 변화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 2. 연구문제

첫째,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의사소통능력 사전 사후 검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의사소통태도 사전 사후 검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지적장애아동

#### 1) 지적장애의 정의 및 분류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에 의하면 18세 이전에 발병한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 실제적 적응행동에서 제한성을 가진다고 정의한다(박정식, 2010). 이에 비해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 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06).

2008년 공포된 특수교육법을 살펴보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10개의 영역별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지적장애 교육대상자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 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해 보면, 지능검사와 적응행동이라는 두 가지 준거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고, 특히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을 지닌 이들을 지원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김경신, 황보명, 2010)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 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서 적응행동이란 개인이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성 기술 등이 포함되며 지적능력과 함께 지적장애의 주요 요인이다. 지적장애아동은 단순히 지능뿐만 아니라 연령에 맞

는 적응행동의 발달 여부도 지적장애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학령기에는 학습행동, 성인기에는 직업이나 주거에 관련된 행동들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지능 지수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적장애는 인지능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적응행동 발달에 문제를 보이기 때문이다(박은혜, 이소현 2011).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능 지수의 상한을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지능과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적장애 여부와 그 등급을 판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복지법은 지적장애를 지능지수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총 세 가지의 급수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급은 지능지수 35이하의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뚜렷하게 곤란하여 평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이고, 제2급은 지능지수가 35이상 50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우이며, 그리고 제3급은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로 되어 있다(장애인복지법, 2014).

## 2) 지적장애의 원인

지적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지적장애와 관련된 모든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 (1) 유전적 요인

유전이란 수천 세대를 지나도 생물의 종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형질의 기본적인 설계도를 어버이에서 자손으로 큰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안정된 설계도에 의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물질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장애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물려받기도 한다. 지적장애가 유전되는 경우는 염색체 이상, 세포 분열 시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열되지 않거나, 조합될 때 2개가 아닌 3개가 한 쌍이 되는 등의 문제일 때 이루어진다(김경신, 황보명, 2010).

지적장애를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는 뇌의 기형이다. 뇌의 기형은 무뇌증과 같이 두뇌의 주요 부분이 생성되지 않고 태어나는 것으로 신경관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다. 소두증은 머리둘레가 평균보다 작은 상태로 작은 원추형 두개골과 구부린 자세, 구부러진 척추 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며 지적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소두증은 상염색체 열성 형질로 유전되거나 방사선 노출, 풍진, 태아 알코올 증후군과 같은 장애로 2차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수두증은 뇌척수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해 축적되면서 뇌에 압력을 가하여 두개골이 점차 확장되면서 뇌조직과 세포를 파괴하게 된 것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수두증은 다유전자 유전이나 모체의 감염 또는 중독에 의한 2차적 결과에 기인하는데 심각한 뇌손상이나 지적장애를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하게 된다(이나미, 최윤희, 2011).

## (2) 환경적 요인

지적장애는 유년시절 심리사회적으로 불리한 요인이나 점차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장애가 외부로 표출될 수도 있지만 잠복 상

태로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적장애의 원인은 출산할 때와 출산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산소결핍증,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나타난다(김경신, 황보명, 2010).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의 요인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수준, 허술한 출산 전 관리, 산모의 무리한 다이어트, 미숙아 출산 경험, 산모의 나이, 산모의 흡연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요인은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상관요인으로 십대 미혼모 출산의 미숙아나 저체중아의 유발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숙아와 저체중아는 매우 짧은 임신기간(28주 이내)이 주요 원인이며, 1.5kg 이하의 저체중 태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숙아와 저체중아의 체중은 지적장애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체중이 적을수록 지적장애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숙아나 저체중아는 낮은 지능지수 외에 뇌성마비, 주의집중력 결핍, 기타 신경학적·의학적 문제를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경신, 황보명 2010).

특히 산소 결핍증은 출산 시 산소부족으로 두뇌손상을 입은 경우이다. 이것은 분만 시 탯줄이 영키거나, 분만시간이 너무 짧거나 긴 경우, 또는 태아가 거꾸로 나올 경우 산소가 결핍되어 태아의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산소결핍은 지적장애나 뇌성마비 등 다양한 장애의 원인이 되고, 폐와 호흡기관들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호흡 곤란증으로써 지적장애의 원인이 된다(김경신, 황보명 2010).

한편 출산 이후 지적장애의 원인으로는 뇌외상, 아동학대, 납중독, 산모의 임신합병증, 양육환경 등이 있다. 이 중에 뇌외상은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장애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뇌외상은 낙상, 차량이나 자전거 사고, 스포츠 관련 활동에서 입은 외상으로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신적 학대 또는 방치(보호태만), 양육 실패 등의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아동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심하게 혼

드는 것과 같은 행동도 해당되고, 뇌출혈과 지적장애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납중독은 신경계 마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고 뇌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작, 뇌성마비, 지적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의 지적 장애의 요인으로는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병, 모체의 영양실조, 출혈, 전치태반 등과 같은 임신합병증이 있으며, 이 요인들이 지적장애아동을 출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양육환경도 지적장애를 유발하는 위험요인 중 하나가 된다. 부적절한 양육환경은 가족 내의 불안정성, 잦은 이사, 부적절한 보살핌과 양육, 육아교육에 대한 산모나 양육자의 이해 부족 등이며, 이로 인한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상호작용, 심리적 문제, 부모의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등의 요소들이 아동에게 지적장애를 유발할 수 있게 한다(김경신, 황보명, 2010; 이나미, 최윤희, 2011).

### 3) 지적장애아동의 언어 특성 및 화용적 특성

#### (1) 일반아동과 지적장애아동의 언어특성 비교

언어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특정 문맥에서 목적에 맞게 언어학적인 틀에 담은 것으로 형식, 내용, 기능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김영태, 2002). 형식은 주로 구문론, 형태론, 음운론을 포함하고, 내용은 의미론적 구성요소를 형성하며, 기능은 화용론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아동의 언어 발달은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 측면인 음운론, 형태론/구문론, 의미론, 화용론 언어 발달로 이루어진다.

첫째, 음운론은 한 언어에서 음소들이 결합하는 체계 또는 규칙으로, 음소를 그 기본 단위로 한다. 모국어의 표준 음운체계를 습득하는 과정은 만 6~8세경에 이르러 거의 완성되며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음운의 발달 단계는 웅알이 단계(0~12개월)서부터 시작된다. 초기 음운

발달 단계(1~2세)인 유아들은 단어를 분화시키지 못하고 통단어로 습득하기 때문에 어휘들 간에 음운론적인 관련성을 알지 못한다(김수진, 신지영, 2007). 다만 자신의 음소 목록에 있는 소리들로만 단어를 선택하여 말하고 단어의 음절을 생략하거나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 말한다.

Shriberg와 Widder(1990)는 지적장애아동의 음운론적 특징은 장애가 없는 집단보다 구어음, 자음 생략 오류를 대부분 보이고, 오류 패턴은 지적장애가 없는 일반 아동과 유사하지만 기능적인 지체를 보인다고 하였다. 김영환(1985)은 지적장애아동의 조음 발달은 일반 아동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정상발달 단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발달의 속도는 3~4세가 가장 빠르고,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아주 느리게 발달하고 있으며, 조음 발달 수준은 정신연령 6세의 지적장애아동과 3세의 일반 아동이 같은 수준으로서 3세 이상 지체된다고 한다.

둘째, 형태론은 한 언어에서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낱말을 형성하는 체계 또는 규칙으로 형태소 및 낱말을 그 기본 단위로 한다. 형태론은 낱말의 배열에 의하여 구, 절, 문장을 형성하는 체계 또는 규칙이다(김경신, 황보명, 2010). 일반아동은 대략 16~18개월 정도가 되면 단일단어 이해능력에서 점차 다단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간단한 지시도 수행할 수 있고 문장 속의 의미관계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18개월 이상이 되면 전보문식의 두 단어로 된 문장을 발화하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단어의 기능을 두드러지게 하는 조사나 어미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30~36개월 정도가 되면 문장 속에 포함된 문법 형태소나 구문 구조, 낱말 배열순서 등에 의존하여 문장을 이해하게 된다(김경신, 황보명, 2010).

지적장애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다소 짧은 발화, 간단한 문장구조, 제한된 문장 형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Paul, 1987; Swisher & Demetras, 1985; Tager-Flusberg, 1985). 전병운(1988)은 지적장애아동의 평균발화길이가 일반

아동에 비하여 2년 이상의 지체를 보이며 정신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 또한 증가한다고 하였다.

셋째, 의미론은 말의 의미나 이해와 관련된 언어 영역이다. 일반 아동은 생후 10~12개월 사이에 첫 낱말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가족 구성원을 지칭하는 ‘엄마, 아빠, 아기, 할머니’ 등과 일상적인 사물을 지칭하는 ‘맘마, 우유, 물’ 등으로 아동이 흔히 접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서 선택하여 말한다. 이처럼 아동은 몇 개의 낱말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시작하다가 자신의 요구를 나타내기 위하여 점차 새로운 낱말들을 표현하고, 의문의 의미로 낱말의 끝을 올리기도 한다. 첫 낱말이 나타난 이후에도 아동 개인차에 따라 10개의 낱말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아동이 선호하는 의미개념 위주로 어휘 발달이 이루어진다(김경신, 황보명, 2010).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아동의 언어 발달은 일반 아동과 유사한 단계를 거치지만 그 발달 속도 면에서 지체되는 특성이 있다. 첫 낱말을 말하는 시기에 대하여 일반 아동보다 지적장애아동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일반 아동이 1.7세 때 구사하는 단어를 지적장애아동은 평균 3세가 되어야 구사한다고 하였다(Karlin, Strazzulla, 1972). 지적장애아동은 정신연령이 같은 일반 아동에 비하여 낱말의 의미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용어휘 능력이 낮은 편이다(Owens, 2002). 따라서 동음이의와 같은 단어는 잘 이해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인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보인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지적장애아동의 언어발달이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음운론적, 형태론/구문론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비슷한 발달단계를 거치지만 발달 속도의 차이를 비롯해 전반적으로는 지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특성

화용적 능력이란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듣는 사람의 의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강연지, 2010). 지적장애 아동의 경우 화용론이 포함하는 여러 요소에 대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의사소통의 의도이다. 지적장애 의사소통 의도를 연구한 나수화, 정은희(2006)는 ‘대답하기’ 의도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는 ‘모방하기’, ‘부정하기’, ‘감정표현하기’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인사하기’, ‘명료화 요구하기’, ‘설명하기’, ‘강조하기’, ‘반복하기’, ‘농담하기’, ‘주의집중 요구하기’ 등은 드물게 사용하며, ‘놀리기’, ‘사건이나 사물 진술하기’, 의도 및 의지·경고하기’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적장애아동은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의사소통 형태를 보이며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는 명료화 요구하기와 명료화하기이다. 지적장애아동은 상황적인 정보가 부족할 때 상대방에게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어적 고착 현상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Owens, 2002).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아동의 말은 명료도가 떨어지며 문장의 길이가 짧고 단순한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또래나 성인과의 대화에서 잦은 대화 단절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오히려 대화상대자로부터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은 명료화 요구를 받게 된다(김성은, 1991).

셋째는 전제 기술이다. 전제 기술은 대화 상대자와 의사소통 시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무엇이며 현재 상황에서 불필요하거나 변화된 새로운 정보

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적절하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김영태, 2002). 이러한 전제 기술은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말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술이다. 일반 아동은 초기 두 낱말 단계가 될 때에 전제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지만 지적장애아동은 훨씬 더 늦게 전제 기술을 보인다(Kumin, 1994).

넷째는 말차례 주고받기이다. 말차례 주고받기 능력은 이후의 대화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필수적인 의사소통능력이다. 그러나 지적장애 아동은 대부분 매우 짧게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문에는 대답을 잘 하지만 대화를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차례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어렵게 느낀다(김경신, 황보명 2010).

다섯째는 주제 다루기이다. 지적장애아동은 낮은 인지능력과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특정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주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지적장애아동은 주제 유지가 되지 않아 대화가 짧아지거나 두서없는 대화가 진행되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김경신, 황보명, 2010).

여섯째는 신체 동작이다. 신체 동작은 대화 도중에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동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도 이상의 지적장애아동은 나이가 들어도 제스처 산출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는 제스처의 유형도 매우 제한적이다(Ogletree, Wetherbt & Westling, 1992). 경도 지적장애아동은 첫 낱말을 산출하기 전까지 일반 아동처럼 제스처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한다.

일곱 번째는 공간학이다. 공간학은 의사소통 시 사람 간의 공간이나 거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사람의 자세나,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 정도, 신체적인 접촉 등을 포함한다. 지적장애아동은 낯선 사람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는 어느 정

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경신, 황보명, 2010).

## 2. 노래 중심의 음악치료

### 1) 노래 부르기와의 언어

언어와 음악은 그 표현과 적용방식이 유사하여 의사소통의 특성을 공유하는 연관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Harding, Ballard, 1982). 언어와 음악은 많은 공통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데, 모두 소리와 리듬, 강약과 반복을 지닌다는 점이다(박태섭, 이영재, 2000). 또한 음악은 멜로디, 리듬, 템포, 음정, 세기, 가사 등을 이용하여 아동의 표현적 언어와 수용적 언어를 발달시켜 주며, 음악 활동을 통해 소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목소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정현주, 2012).

한편 ‘노래 부르기’는 아동이 평소에 발어하지 않는 낱말과 단어, 구를 자연스럽게 노래 속에 넣어 부를 수 있게 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Lynn(1988)은 노래는 말하지 않는 아동들을 참여시키고 호흡력의 향상과 적절한 발음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며 부적절한 말을 줄이고 적절한 말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노래는 음악과 언어가 같이 어우러져 특정한 문맥에 근거하여 단어들이 선택되므로 아동이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고 어휘들을 정확하게 활용하여 말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정현주, 2012).

음악활동은 내담자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학습자가 직접 만드는 노랫말 만들기는 반복되는 리듬이나 되풀이 되는 가사로 어휘를 보다 쉽게 기억하게 하여 언어발달

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치료에서는 음악 내에서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들인 표정, 몸짓, 시선, 촉각, 공감각 등 모든 감각적인 요소들을 활용한 접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음악치료에서 언어교육은 각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치료방법으로 접근이 어려운 대상에게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최애나, 2012).

## 2) 언어발달을 위한 음악치료

음악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아동들의 언어적 영역에 맞추어 다양한 음악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음악은 융통적인 도구로 음악치료사가 적절한 음악활동으로 구성하였을 때 아동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치료적 매개가 될 수 있다. 치료 초반부에서는 발화에 필요한 호흡 강화에 목표를 둔 활동이 있으며, 치료 후반부에서는 주제에 대한 가사 만들기와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기가 있다(정현주, 2012). 또한 오은주, 최애나(2009)는 언어훈련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의도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노래를 이용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 의사소통과 관련된 음악치료 선행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그 중에 정규진, 최애나, 허혜리(2012)는 창작곡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장애 아동의 자발적인 언어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며 타인과 상호 관계를 맺는데 유용하고 나아가 의사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언어발달과 음악적 자극의 관계를 연구한 김영실(2001)은 3명의 자폐아동에게 언어적 자극과 음악적 자극을 교대로 반복 설계하여 '인사하기, 사물

이름 말하기, 치료사의 요구에 반응하기' 등 사후의 행동 비교를 통해 언어적 자극보다 음악적 자극에 대한 반응의 백분율이 더 높았음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 사회 성숙도 검사, 수용-표현 언어 발달 검사 등을 통해 증명하였다.

더 나아가 지적 장애아와 음악치료의 관계를 연구에서 강성미(2004)는 지적장애아 4명에게 의사소통 중심의 가창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의사소통 발생률 증가 및 언어검사도구(PRES)사전사후 검사 결과에서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지적 장애아동 외에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도 있다. 황인주(2008)도 만2세 유아들에게도 확대하여 소리감각, 가창, 감상, 즉흥연주, 신체 표현, 게임 등으로 구성된 음악활동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차별적으로 실시한 결과, 수용 및 표현 언어검사 도구, 사전·사후 분석에서 기존의 일반적 음악수업을 받은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에서 유의미한 언어 향상이 나타났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렇듯 음악치료는 언어 발달을 위한 의사소통을 유도할 수 있으며(김수지, 곽은미, 2009; 장혜원, 2013; 최병철, 2006), 노래 부르기, 음악에 따라 동작하기, 악기연주 등도 언어 발달의 의사소통을 촉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영주, 정광조, 2006; 안기숙, 유은정, 2010; 한성은, 2006).

한편 노래를 통한 화용적 의사소통 발달에 관한 연구는 안기숙, 유은정(2010)의 논문이 있다. 이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래를 반복적으로 부르게 하고 그것과 관련 있는 그림이나 실물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어휘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했으며, 아동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따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다양하게 의사소통을 하여 어휘 표현력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아동들이 흔히 접하는 다양한 노래를 문답식으로 활용하여 신체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노래로 표현하는 화용적 표현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노래를 통한 화용적 표현력을 증가시킨 경우는 전래동요를 활용한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권정혜, 최성열, 최은희(2015)는 전래동요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로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또래 아동들이 언어자체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다양한 감각을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력이 증가됨을 밝혔다. 이 전래동요의 노랫말 바꾸기는 아동들에게 익숙한 놀이로써 최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아동 스스로 흥미와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언어와 사고능력을 증진시킨 이유가 된다고 하였다.

노래 중심 음악치료는 멜로디와 리듬, 가사 등의 음악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Darrow와 Starmer(1986)는 노래 부르기가 음악의 멜로디에 언어적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노래 중심 음악치료는 언어발달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음악치료는 기존의 언어치료 기술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Cohen, 1994). 음악치료에서 리듬은 유창성 장애에, 멜로디는 음고 장애의 경우에, 노래의 가사는 조음과 어휘력 향상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정현주, 2012). 즉 노래 중심의 음악치료는 언어활동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의사소통의 화용적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 3)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노래 활동

지적장애아동은 일반 아동들과 같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없다. 그것은 지적장애아동들의 언어발달 과정에서 이미 언어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음악치료 중에 노래를 중재도구로 사용할 경우 그 효과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노래 부르기 활동은 지적능력이 낮은 아동들이 쉽게 접근하여 노랫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동의 흥미를 높여 지도 효과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엄진명, 이필상, 2012).

노래는 지적장애아동의 또래 그룹 활동에서 상호간 서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래그룹에서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의 소리뿐 아니라 다른 아동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음정이나 박자가 맞거나 틀렸는지 스스로 확인하며 조율한다. 이렇듯 자신과 상대방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아동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음악을 상대방과의 상호교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된다(김혜경, 박현옥, 2000).

Gaston(1968)은 지적장애아동에게 손뼉 치기, 발 구르기, 노래 부르기 등의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시킴으로써 언어와 자기 표현력이 증진되어 집단 내에서의 상호관계성이 발달함을 밝혔고, 배정화, 최성규(2004)도 지적장애아동이 노래 부르기를 통해 어휘를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지적장애아동의 특성이 통문자를 쉽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래 부르기를 통한 어휘지도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치료 중에 아동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요나 쉬운 리듬을 활용하여 언어발달을 향상시킨 연구도 있다. 박상희, 석동일, 이혜경(2000)은 지적장애아동에게 동요를 통한 음률활동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언어의 기초적인 이해능력과 표현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발음의 명료도가 향상됨을 밝혔고, 김영주, 정광조(2006)도 아동들이 좋아하는 곡을 사용하여 신체인지 및 동작을 유도할 수 있게 구성한 언어 훈련을 실시한 결과 지적장애아동들의 용알이에 억양이 생겼고 호흡량이 좋아졌으며 멜로디를 통한 수용언어, 인지력, 표현 언어, 또래와의 관계 등이 향상되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박경순(2009)도 지적 장애 아동들의 노래 만들기 활동이 또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적장애아동들은 노래 부르기, 노래 대화하기, 노래 만들기 등의 노래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인식과 함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음악치료에서 노래가사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며, 반복되는 리듬 속에 다양하게 다른 주제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즉 익숙하고 안전한 음악적 구조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됨으로 지적장애아동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지적장애아동들의 노래활동은 다양한 가사의 인지활동으로 언어치료에 도움이 되어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노래 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능력 및 의사소통 측면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인천에 소재한 I장애인 복지관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학년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화용적 능력 평가와 의사소통 태도 평가를 실시하여 실험집단 5명, 통제집단 5명으로 무선 배치 하였다. 두 집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Ⅲ-1>, <표Ⅲ-2>와 같다.

<표 Ⅲ-1> 실험집단 정보

이름	성별	나이(학년)	장애등급	아동의 언어 특징
강00	여	11세(4학년)	지적2급	· 발화시 두세 낱말 정도로 짧은 편이며, 발음이 부정확함 · 글자는 천천히 읽기가 가능하나 쓰기는 불가능함
김00	남	12세(5학년)	지적3급	· 주위 산만하고 집중력 부족으로 지시 따라 하기에 어려움을 보임 · 대화를 주고받을 때 대화의 주제에서 자주 벗어남 · 읽고 쓰기는 가능함
박00	여	11세(4학년)	지적2급	· 주위 산만하고 집중력 부족 · 자발화 보다는 모방발화를 주로 함 · 소극적이나 지시 이해가 가능함
이00	남	13세(6학년)	지적3급	· 단 문장 사용을 주로 사용하며, 읽고 쓰기가 가능함
조00	여	11세(4학년)	지적3급	·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 중 필요 없는 말을 하거나 끼어들 때가 있으며,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하는 경향을 보임</li> </ul>
총	5명	

<표 III-2 > 통제집단 정보

이름	성별	나이(학년)	장애등급	아동의 언어 특징
나00	남	13세(5학년)	지적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위 산만하고 집중력 부족</li> <li>·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하거나 '네/ 아니오'로만 짧게 반응하며 발화는 두세 낱말 정도로 짧은 편임</li> <li>· 차례 지켜 말하기가 어려움</li> </ul>
신00	남	13세(5학년)	지적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 아니오'로 반응하거나 발화는 두세 낱말 정도로 짧은 편임</li> <li>· 말을 하기보다는 치료사의 팔을 흔들어서 요구하기 의도를 표현함</li> <li>· 자발화 보다는 모방발화를 주로 함</li> </ul>
전00	남	11세(4학년)	지적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한 문장으로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술이 부족</li> <li>· 읽고 쓰기가 가능함</li> </ul>
전00	남	12세(5학년)	지적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가능하며, 읽고 쓰기가 가능함</li> <li>·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필요없는 질문이나 말을 할 때가 많음</li> <li>· 차례 지켜 말하기가 가능하나</li> </ul>
노00	여	12세(5학년)	지적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 하는 데는 어려움을 보임</li> <li>· 읽고 쓰기가 가능함</li> </ul>
총		5명		

## 2. 검사 도구

### 1) 화용적 능력 평가

본 논문의 평가도구는 유은정(2006)이 강수균, 권도하, 김영태, 석동일, 정옥란(1994)의 언어 진단평가 도구를 인용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5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화용적 능력 가운데 인사에 반응하기, 요청하기, 사건이나 경험 설명하기, 차례 지켜 말하기, 지시 따르기, 시선 접촉하기, 따라 말하기, 과업에 주목하기, 화제 유지하며 말하기, 역할 놀이하기, 순서대로 행동을 묘사하기, 사물의 기능을 이해하기, 그리고 활동이나 대화 시도하기의 13가지 항목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중재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 2) 의사소통태도 검사

의사소통 태도의 평가는 Andis가 개발한 사회성/의사소통 사정도구(Social Skills/Communication)중 의사소통태도에 관한 문항과 Erickson의 의사소통태도 평가 개정판(S-24) 도구를 인용하여 안미화(2010)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Andis, Erickson; 안미화, 2010, 재인용).

## 3. 연구 설계 및 절차

### 1) 연구 설계와 방법

본 연구에서 음악치료 임상 프로그램은 주 2회, 50분 세션으로 총 14회기

에 걸쳐 1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룹 세션의 형태로 시행하였다.

연구 설계 상 대상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총 두 그룹으로 편성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화용적 의사소통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사후, 실험·통제집단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는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연구 설계

집단	사전검사	음악치료활동	사후검사
통제집단	O1	X	O2
실험집단	O3	O	O4

##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지적장애아동 10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음악치료 사전·사후 검사를 위해 의사소통점수를 측정하고 항목별 점수 변화가 있는 것을 비교하였다. 음악치료를 시작함과 동시에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기능 수행을 회기별로 관찰기록지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관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여 녹화한 다음에 연구자 외 1명의 언어치료사가 연구자와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여 일치와 불일치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화용적 의사소통 능력 평가방법은 평가지에 제시된 화용론적 행동을 아동에게 유도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적절한 반응에는 4~5점, 적합하지 않거나 무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1점으로 채점하였다. 그 외의 아동이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이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2~3점으로 채점하였다.

의사소통 태도에 관한 평가는 5점 척도로 구성하고 사전, 사후 평가 시

아동의 태도를 관찰하여 자신감, 적극성, 관심도, 안정감, 어려움으로 5가지 항목이 각각의 평가내용에 합당하는지의 여부를 체크한 후 연구자가 평가지에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시행 전에 대상자들의 의사소통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음악치료 프로그램 시행 후 다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 3) 관찰자 간 신뢰도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와 언어치료사 1명이 측정에 관여하였다. 방법은 사전 사후 검사 시 촬영된 영상을 보며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각 항목들의 평가결과 중에 관찰자 간 체크점이 일치한 항목 수를 세어 항목수에 대한 비율로 평가자 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화용적 능력 검사 평가자간 신뢰도는 90.6%의 일치도를 보였다.

관찰자 간 신뢰도(%)=(행동 발생에 대한 일치한 구간 수/전체 항목 수)x100

### 4) 음악치료 프로그램 구성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총 14회기에 걸쳐 5명의 대상자를 그룹 세션의 형태로 <표 III-4>와 같이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였다.

<표 III-4> 음악치료 프로그램 한 회기 구성

단계	소요시간	활동 내용
도입	10분	· hello song을 부르며 활동시작을 알리며, 그룹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 중심활동의 기대감을 주는 목적으로 친숙한 음악을 들으며 치료사와 그룹원들의 동작을 모방한다.
중심활동	30분	· 노래 중심의 음악치료 활동 [매 회기 다른 주제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노래 부르기, 대화형식 노래 부르기, 가사토의, 팔호 안에 노랫말 채우기]을 하며 의사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종결	10분	· 활동 후 그룹원들과 함께 활동에 대한 느낌 나누기 · Good bye song 부르며 활동을 마친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첫 단계인 도입 부분은 흥미와 호기심을 유도하도록 10분간 실시하였다. 이 부분에는 지적장애아동이 쉽게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선율에 인사말을 넣어 인사노래를 부르게 하여 프로그램에 적응하도록 했다. 그 후 친숙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하여 치료사와 그룹원들과 함께 동작을 모방함으로써 그룹원들 간의 상호교류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도입부분의 핵심은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심활동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핵심이다.

본 프로그램의 중심 활동은 노래중심의 그룹음악치료로 30분간 실시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노래를 부르며 의사표현을 익히고, 본인의 생각을 노래에 넣어 노래 부르게 하며, 대화형식의 언어 교류를 하면서 가사에 대한 의미를 교환할 수 있게 하고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하는 악기를 탐색하게 하고 연주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음악중심의 프로그램은 대상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본인의 의사를 언어로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마지막 종결 단계는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단계로 10분간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좋았던 느낌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언어적 표현을 하게 하여 상호교류를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노래 ‘Good Bye Song’을 부르게 하여 흥겹게 프로그램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마무리 단계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정리함과 동시에 다음 프로그램을 즐겁게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구성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총 14회를 각 2회기로 구성하였으며, 유은정(2006)이 정의한 ‘화용적 의사소통의 정의’를 참조하여 7단계별 목표를 세웠고 자세한 주요활동과 치료적 근거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전체구성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음악치료 프로그램

단 회 계 기	단계목표	주요 활동	치료적 논거
1 ~ 2	· 치료사와 그룹 구성원들 간의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 · 활동에 대한 이해와 적응	· 인사노래/헤어지는 노래 · 자기소개 노래 · 요일/계절 노래 부르기 · 내가 좋아하는 것, 노래 부르기 · 다양한 동물들의 특징을 동작과 소리모방으로 표현하며 동물 소리에 어울리는 악기를 지정하여 연주하기	· 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음악적 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반복적인 음악적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노래에 좋아하는 것을 넣어 불러보며 간단하고 쉬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유도할 수 있다. · 다양한 동물들의 특징을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하며 이를 동작으로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기술 향상과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 4	· 시제/의문사 수용·표현 · 요청하기	· 의성어/의태어 노래 부르고, 가사를 바꾸어 부르도록 하기 · ‘~ 주세요’ 노래 부르기	· 여러 가지 종류의 노래를 배우면서 그 노래 속의 가사를 통해 어휘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행동은 단어 습득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며, 노래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들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랑 무엇을’ 대화형식으로 노래 부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고 내용과의 관계도 이해하게 된다(김종인, 2008).</li> <li>· ‘~주세요’ 노래 부르며, 도움, 허락 등 요구하는 방법을 배운다.</li> <li>· ‘누구랑 무엇을’ 노래를 통해 치료사와 그룹원이 대화형식으로 시제와 의문사 수용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3	5 ~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 부르며 생활 순서 익히기</li> <li>· 지시 / 수용 능력 기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활동의 순서를 노래와 손동작을 통해 익히기</li> <li>·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 속 가사의 지시와 똑같이 움직인 뒤 지시에 따라 악기연주하기</li> <li>· 모두가 잘 아는 노래로 일상생활 속 활동 순서를 자연스럽게 익힌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에 맞는 행동과 언어적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생활 속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li> <li>· 다른 사람의 말, 행동, 리듬연주를 따라하는 음악활동은 그룹원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흥미를 유발 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li> </ul>
4	7 ~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표현과 상대방 감정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토의 및 구성원들과 이야기 나누기</li> <li>· ‘사랑’ 노래를 불러보고 괄호 안에 노랫말 채우기</li> <li>· ‘나는 숲속의 음악가’를 ‘나는 멋있는 음악가’로 개사하여 괄호 안에 노랫말 채워 부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로 연주하기</li> <li>· 괄호안의 노랫말 채우기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짧은 단어 혹은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게 되므로 언어 표현력 향상과 창작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li> <li>· 가사 만들기 작업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적절한 단어들을 선택하여 내용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정현주, 2012).</li> </ul>
5	9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교류 기술 향상 및 언어교류</li> <li>· 일관성 유지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의 일정한 형식은 구조적인 틀을 제공하여 아동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적극적인 상상과 활동을 유도한다.</li> <li>· 또한 쉽고 단순한 가락과 노랫말은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다른 그룹원과의 생각을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 그룹구성원들 사이에 긍정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김종인, 2009).</li> <li>· ‘색깔 느낌’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연상되는 사물을 넣어 불러보기</li> <li>· 8조각의 익숙한 동요 가사 조각 맞추기</li> <li>· 노랫말 채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별로 가사조각 맞추기를 회기가 거듭해 갈수록 낱말별로 나누어서 제시함으로써 그룹원들과 토의하고, 주제를 유지하며 적절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6	11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언어적 표현 및 창의력 향상</li> <li>· 사회 교류 기술 향상</li> <li>· 사건/경험을 설명하기</li> <li>· 주제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정카드 보고 연상되는 노래와 과거 경험을 발표하고 토론하기</li> <li>· 학교/ 일상 / 자신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노래 불러보기</li> </ul>
7	13 ~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물의 기능 이해하고 말하기</li> <li>· 주제 유지/언어적 교류</li> <li>·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li> <li>· 창조적 자기표현 기술 및 언어 표현력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위, 자 등 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야기해 보고 노래 불러보기</li> <li>· ‘숲속 작은 집 창가에’ 노래 부른 뒤 주제에 맞는 가사와 적절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노래 부르기</li> <li>·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정한 뒤 노래 부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용적 의사소통은 얼굴표정, 시각적 반응 등의 비언어적 영역까지 다룬다(배전자, 2005), 이 활동은 토론하는 활동으로 감정표현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li> <li>· 학교생활 등 자신의 일화를 주제로 정해 노래를 불러봄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li> <li>·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며 주제를 바꾸는 것은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 특정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Foster, 198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물의 기능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도록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힌다.</li> <li>· 음악 안에서 가사가 전제하는 의미와 부분적인 언어적 참여를 하게한다. (가사를 통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유도한다.)</li> <li>· 작사 작업에서 습득된 언어 기술들을 사용하여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주제에 맞는 가사를 만들어 언어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Davis,1999; 정현주, 2012 재인용).</li> <li>· 자신이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노래로 표현해 보며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인정받는 기회를 주어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 뿐 만 아니라 자기표현 및 언어적 표현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li> </ul>

1단계 1-2회기에는 치료사와 구성원들 간의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이 단계에서는 자

기소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노래를 부르게 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친숙한 동물들의 특징을 언어로 표현하게 하여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즉 대상자들을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단계 3-4회기에는 시제와 의문사, 요청하는 대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을 주세요’, ‘누구랑 무엇을 할까요?’ 등의 요구표현과 의문사가 들어 있는 노래를 부르게 하여 상황에 따른 대화능력과 언어표현을 익히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단어습득 능력과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며 상호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단계 5-6회기에는 노래와 악기를 이용한 활동으로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았다. 일상생활의 행동을 지시하는 노래가사를 부르게 한 다음 그것에 따른 행동을 손동작 활동과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노래가사를 통해 지시에 따라 연주하는 동적인 활동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말과 행동, 연주와 연결시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4단계 7-8회기에는 자기표현과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 노랫말 만들기로 구성하였다. 노랫말 만들기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괄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사를 채우는 방식이다. 노랫말 만들기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표현의 치료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5단계 9-10회기에는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위한 언어능력을 향상시켜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색깔 느낌’이라는 노래를 통해 사물의 연상을 유도하면서 노랫말 채우기를 시도하게 하였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원의 표현에 관심을 갖게 하여 구

성원들의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하면서 적절한 질문과 답변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게 했다.

6단계 11-12회에서는 자신의 일상경험을 설명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표정카드를 보고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킨 주제를 노래로 부르게 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얼굴표정,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화용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주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감정표현에 대한 언어창의력도 높아질 수 있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7단계 13-14회에서는 사물의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노래 부르게 하고 창조적인 자기표현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지적장애아동인 점을 감안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위, 자 등의 문구에 대한 노래를 불러보게 하여 사물의 기능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숲 속 작은 집 창가에’란 노래가사를 시나리오로 개사하게 하여 언어창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계는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으로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한 후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하여 긍정적인 자아상 및 자기표현능력의 만족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프로그램의 음악 활동은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여 노래 부르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체프로그램은 각 단계별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지시에 따라 움직이거나 연주하기, 가사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그룹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대화형식으로 질문과 답하기, 요청하기, 생활 순서 익히기, 자기표현하기, 주제 유지하며 언어교류하기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화용적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은 화용적 능력과 의사소

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래 부르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노래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많이 불렀을 법한 익숙한 노래를 사용하거나 익숙한 동요 멜로디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연구자가 편곡하여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위해 선곡하거나 편곡한 노래는 각 회기 별 목표와 연관되어 있는 노래의 가사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을 마무리 한 이틀 뒤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 차이의 영향을 배제한 후 사후 결과의 차이를 검증하는 ANCOVA(공변량분석)의 비모수검정인 Ranked ANCOVA(순위공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Ranked ANCOVA의 절차는 각 변인에 순위변수를 생성하여 회기분석 한 후 잔차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셋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점수에 대한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s 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았다.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n=10$ ) 모든 통계적 분석은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이다.

## IV.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학년, 장애등급을 알아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일반적 사항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실험	통제	전체	
성별	남	2	4	6	60.0
	여	3	1	4	40.0
나이	11세	3	1	4	40.0
	12세	1	2	3	30.0
	13세	1	2	3	30.0
학년	4학년	3	1	4	40.0
	5학년	1	4	5	50.0
	6학년	1	0	1	10.0
장애등급	1등급	0	2	2	20.0
	2등급	2	0	2	20.0
	3등급	3	3	6	60.0
	계	5	5	10	100.0

###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화용적 능력과 의사소통태도 사전검사점수에 대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화용적 능력 사전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p >.05$ ), 의사소통태도 사전점수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p >.05$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측정치	실험집단(n=5)	통제집단(n=5)	U	Z	p
	평균순위(순위합)	평균순위(순위합)			
화용적 능력	5.70(28.50)	5.30(26.50)	11.50	-.21	.834
의사소통태도	5.40(27.00)	5.60(28.00)	12.00	-.11	.914

\*  $p <.05$

### 3. 화용적 능력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화용적 능력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Ranked ANCOVA를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사전점수 차이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사후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 8)=11.09, p <.05$ ).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3> 화용적 능력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실험집단(n=5)	1.34	1.33	.59
통제집단(n=5)	-1.34	1.22	.54
합계	.00	1.86	.59

**<표 IV-4> 화용적 능력에 대한 Ranked ANCOVA 검정**

	제공합	df	평균제공	F	p
집단-간	18.00	1	18.00	11.09	.010*
집단-내	12.98	8	1.62		
합계	30.9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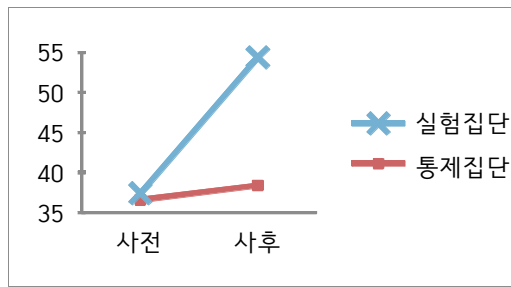
\*  $p < .05$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s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5>, <그림 IV-1>과 같다.

**<표 IV-5> 화용적 능력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	37.40(10.11)	54.40(11.67)	-2.02	.043*
통제집단	36.60(14.84)	38.40(16.10)	-1.29	.197

\*  $p < .05$



<그림 IV-1> 화용적 능력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 4. 의사소통태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의사소통태도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Ranked ANCOVA를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사전점수 차이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사후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 8)=11.99, p <.01$ ).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6> 의사소통태도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실험집단(n=5)	1.57	1.52	.68
통제집단(n=5)	-1.57	1.35	.60
합계	.00	2.14	.68

<표 IV-7> 의사소통태도에 대한 Ranked ANCOVA 검정

	제공합	df	평균제공	F	p
집단-간	24.73	1	24.73	11.99	.009**
집단-내	16.51	8	2.06		
합계	41.2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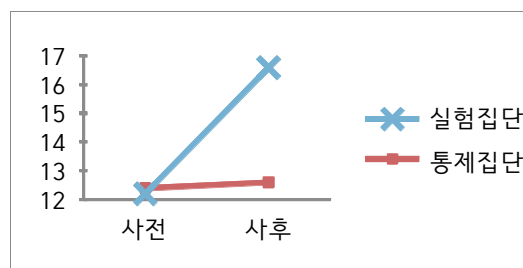
\*  $p < .05$ , \*\*  $p < .01$

각 집단의 점수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s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8>, <그림 IV-2>과 같다.

<표 IV-8> 의사소통태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	12.20(3.49)	16.60(3.58)	-2.06	.039*
통제집단	12.40(3.91)	12.60(4.62)	-.38	.705

\*  $p < .05$



<그림 IV-2> 의사소통태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 V. 결론

###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래중심음악치료가 화용적 능력 및 의사소통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 소재의 I복지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노래중심음악치료를 실시하였고 그 연구방법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방법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능력과 의사소통 태도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화용적 능력 평가'와 '의사소통 태도 평정 척도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이 진행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두 집단의 화용적 능력과 의사소통 태도 사전 점수에 대하여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화용적 능력 사전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p > .05$ ), 의사소통태도 사전점수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p > .05$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무선 배치된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자료분석은 Ranked ANCOVA의 분석방법을 사용한 결과 노래중심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화용적 능력 향상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F(1, 8)=11.09, p < .05$ )를 보였으며,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s을 검정을 실시하여 실험집단의 화용적 능력 평균점수가 37.40에서 54.40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5$ )차이를 보였으나 통제집단은 평균점수가 36.60에서 38.40으로 유의미한( $p > .05$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Ranked ANCOVA를 실시한 결과 노래중심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해보았을 때 의사소통 태도 향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F(1, 8)=11.99, p < .01$ )차이를 보였으며,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s를 검정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의사소통 태도 평균 점수는 12.20점에서 16.60점으로 증가 되었으며, 통제집단은 12.40에서 12.6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아동에게 화용적 능력 및 의사소통에 향상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 가사 바꾸기를 통한 어휘력 증가이다. 언어발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의미론의 영역이다. 지적장애아동들의 언어표현 장애는 어휘력의 부족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런 점에서 노래가사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서 표현하려고 할 때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려는 고민을 통해 어휘력이 증가할 수 있다. 노래의 리듬에 맞추어 개사를 하는 동안 단어 선택의 시간을 얻을 수 있어 어휘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의성어와 의태어는 단어의 반복적인 특성이 반복되는 음악의 리듬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적극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과정은 단어습득과정을 노래 부르기라는 과정을 하면서 쉽게 접근하여 의미론이 향상될 수 있다.

두 번째, 화용론과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 화용론은 발화자와 청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기본이다.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자기표

현에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지적 아동과는 다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리듬에 맞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 부르게 하여 치료사와 대상자 간의 유대감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노래가사에 일상생활과 연결된 내용을 치료사와의 대화방식을 통해 지시와 행동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화용론에 기여한다.

세 번째, 노래 부르기는 비언어적 표현 및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화용적 의사소통은 언어 외에 얼굴표정, 몸짓, 시각적 반응 등의 표현까지 포함한다. 지적장애아동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소극적이다. 노래 부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노래내용에 맞는 표정 짓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경험을 노래로 표현하고 그룹원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래 부르기는 창조적인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음악 연주를 통한 집중력과 주제에 따른 언어적 교류에 도움을 준다. 지적장애아동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이 적다. 그런 점에서 악기 연주는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추고 리듬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주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노래로 표현한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흥미를 보이기 때문에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서 노래중심음악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능력 및 의사소통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노래중심음악치료는 초등학교 고학년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능력 및 의사소통 태도를 향상시켜 올바른 언어발달을 돕고, 지적장애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

게 할 수 있는 치료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 2. 제언

본 연구는 노래중심음악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능력 및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능력 및 의사소통에 대한 긍정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 소재의 복지관 내 초등학교 고학년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5명의 표본의 크기가 작아 이에 대한 연구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 범위와 크기를 확대하고, 연구 참여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노래중심음악치료 프로그램은 14회기 단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나, 복지관의 행사 일정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복지관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활동 기한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복지관과 상세한 일정 조율을 통하여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노래중심음악치료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아동의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음악 수업이나 음악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 등 개인적인 음악 경험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통제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성미(2004).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노래활동 사례 분석. **한국음악치료교육학술지**, 1(1), 33-46.
- 강수균, 권도하, 김영태, 석동일, 정옥란(1994). **언어진단**. 서울: 한국언어치료학회
- 강연지(2010). 스크립트 활동을 통한 언어중재가 지적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기능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은미, 김수지(2009). 학령전기 비구어 자폐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한 음악치료의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이론적 고찰. **자폐성장애연구**, 9(2), 97-110.
- 국가법령정보센터(2006). <http://www.law.go.kr/main.html/>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 권정해, 최성열, 최은희(2015). 전래동요를 활용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 및 사고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지**, 24(2), 109-122.
- 권주석(2015).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 지적장애아동의 표현 언어기술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연구**, 19(1), 1-21..
- 김경신, 황보명(2011). **지적장애아동 언어치료**. 서울: 학지사
- 김기욱(2007). 통합 상황에서 실시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자폐 유아의 자발화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연구**, 6(1), 97-121.
- 김미인, 안성우, 최상배(2006). 정신지체 학생의 단어재인 능력과 음운인식 능력에 대한 연구. **정신지체연구**, 8(2), 183-205.
- 김성은(1991). **정신지체아와 정상아의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명료화 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신지영(2007). **조음음운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영실(2001). **개별음악치료를 통한 언어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향상에 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 정광조(2006). **가창활동이 정인지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2(2), 27-52.
- 김영태(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영태, 정영주(2008). **음악을 이용한 언어중재가 지적장애 아동의 상대어 개념 습득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연구**, 7(2), 139-159.
- 김영환(1985). **정인지체아의 조음발달 특징**. **특수교육학회지**, 6, 49-69.
- 김재리, 최소영(2015). **사회성을 길러주는 화용언어**. 서울: 예꿈교육.
- 김종인(2009). **행복을 주는 음악치료**. 서울: 지식 산업사.
- 김진선(2004). **호흡훈련을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중재가 뇌성마비 아동의 발성(phonation)의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박현옥(2000). **음악치료의 구조와 치료 실체에 관한 연구**. **교과교육연구**, 3(1), 151-183
- 김화수, 박정식, 박지혜(2014). **지적장애 아동의 화용언어 특성**. **지적장애연구**, 16(2)
- 나수화, 정은희(2006). **정인지체아동 언어의 화용론적 특성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11(1), 64-80.
- 노승현, 양희택, 정묵성(2007). **장애인복지개론**. 서울: 학현사.
- 노혜선(1999). **노래 부르기가 정인지체아동의 조음개선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민천식(2010). **특수아동의 이해**. 서울: 교육출판사
- 박경순(2009). **지적장애아동의 또래관계를 위한 노래 만들기 사례 연구**. 이

- 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상희, 석동일, 이해경(2000). 음률활동에 의한 정인지체아동의 언어능력 개선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5(2), 171-192
- 박소연(2004). 동요 활동이 자폐성 아동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6(2), 38-51.
- 박은혜, 이소연(2011).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박정식(2010). AAIDD 11차 지적장애 정의와 분류 체계의 함의. **지적장애연구**, 12(4), 1-19
- 박태섭, 이영재(2001). 율동동요 학습활동이 자폐성 장애아의 언어인지능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유아체육학회지**, 2(1), 117-136.
- 배정화, 최성규(2004). 개사를 통한 노래 부르기가 정인지체아동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문제연구**, 5(1), 279-296
- 백운찬(1997). **대화체 동요 및 전래동요가 자폐아의 반향어 감소 및 대답하기 개선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기숙, 유은정(2010). 동요 부르기의 통합적 활동이 발달 장애아동의 어휘력 및 화용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2(2), 483-500.
- 안미화(2010). **스토리텔링 그룹 활동이 ADHD 아동의 화용적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진명, 이필상(2012). 신체표현활동을 이용한 노래 부르기가 정인지체아동의 어휘 습득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3(2), 31-48.
- 오은주, 최애나(2009). 음악치료가 경도정인지체아동의 감정어휘습득 및 감정표현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5(1), 75-99.
- 유은정(2006). 화용론적 언어중재를 통한 ADHD 아동의 의사소통 기술 증진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8(3), 283-311.
- 이소현(1999). 자폐장애의 일탈적 특성 고찰을 통한 특수교육적 접근의 방향성

- 정립: 사회성 발달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34(2), 227-256.
- 이나미, 최윤희(2011). **지적장애아 교육**. 서울: 청목출판사
- 이은주(2010). 국외 화용언어 평가도구 분석. **언어치료연구**, 19(4), 109-132.
- 이재혁, 김희영, 이종화(2007).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3(1), 5-12.
- 임은애(2008). 동작, 그림, 언어를 통합한 음악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음악적 이해력과 흥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지**, 28(5), 197-223.
- 장애인복지법(2015). <http://www.law.go.kr/행정규칙/장애등급판정기준>
- 전병운(1994). 정신지체아동의 화용능력 발달 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지**, 13(1), 117-148
- 전병운, 조유진(2001). 정신지체학생의 화행규칙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지**, 6(1), 1-23.
- 정규진, 최애나, 허혜리(2012). 창작곡을 활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자폐성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1), 65-85.
- 장혜원(2013). 음악활동에서 관찰될 수 있는 유아의 언어의사소통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5(1), 31-61.
- 정현주, 김영신, 최미환, 조혜진, 노주희, 김동민, 김진아, 문소영, 곽은미, 배민정, 이승희, 김승아, 김신희, 이수연, Summer, L., Scheiby, B., & Austin D.(2012).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 정현주(2012).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최병철(2006).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 최애나(2012).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4), 1-1.
- 한성은(2006). 사회적 상황 중심의 노래활동을 통한 자폐아동의 언어표현 증진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지**, 3(1), 14-28.

- 허인숙(2001). 통합교육 장면에서 음악놀이 활동이 정인지체아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성숙(2004). 유아동요의 발달적 적합성 분석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지*, 10(2), 173-184.
- 황은경(2004). 환경의 구조화가 정인지체 아동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교육학회지*, 39(3), 217-237
- 황인주(2008). 만 2세 영아의 음악경험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73-87.
- Cohen, N, S.(1994). Speech and Song: Implication for Therapy. *Music Therapy Perspective*. 12(3), 8-13.
- Darrow, A., & Starmer, G., J.(1986). The Effect of Vocal training on the intonation and rate of hearing impaired children's speech: A pilot study. *Journal of Music Therapy*, 31(1), 31-62.
- Gaston, E. T.(1968). Man and music. In E.T. Gas-ton(Ed.), *Music in therapy*(pp. 7-29). New York: macmillan.
- Harding, C., & Ballard, K. D.(1982). The effectiveness of music as a stimulus and as a contingent reward in promoting the spontaneous speech of three physically handicapped preschoolers. *Journal of Music Therapy*, 19(2), 86-101.
- Karlin, I. W. , & Strazzulla, M.(1972). Speech and language problem of the mentally deficien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17, 286-294.
- Kumin. L.(1994). *Topics in Down syndrome: Communication skills in children with down syndrome*. A Guide for parents. USA: Woodbine House.

- Lim, hayoung A.(2010). Effects of Developmental speech and Language Training Through Music on Speech Production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Music Therapy*, 35(2), 88-10.
- Lynn, J. J.(1988). The use of music therapy increase language in institutionalized mentally retarded female adults. Texas of University
- Ogletree, B. T., Wetherby, A. M., & Westling, D. L.(1992). Profile of the prelinguistic intentional communicative behaviors of children with profound mental retardation communicative behaviors of children with profound mental retardation.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97(2), 186-196.
- Owens, R. E.(2002). Mental retardation: Difference and delay. In D.K. Bernstein & E. Tiegerman-Farber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in children* (pp. 436-509). Boston: Allun & Bacon.
- Paul, R.(1987). Communication. In D. J. Cohen & A. M. Donnellan (Eds.), *Handbook of autism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pp. 61-84). New York: John Wiley & Sons.
- Seybold, C. D.(1971). The value and use of music activities in the treatment of speech delayed children. *Journal of Music Therapy*, 8(4), 102-110.
- Shriberg, L. , & Widder, C.(1990). Speech and prosody characteristics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speech and Gearing Research*, 33, 627-653.

- Swisher, L., & Demetras, M. J.(1985). The expressive language characteristics of autistic children compared with mentally retarded or specific language-impaired children. In Schopler, E., & Mesibov, G. B. (Eds.), *Communication problems in autism*(pp. 147-162). New York: Plenum.
- Tager-Flusberg, H.(1985). Putting words together: Morphology and syntax in the preschool years. In J. Berko Gleason(Ed.), *The development of language*(pp. 151-194). Columbus, OH: Merrill
- Zoller, M. B.(1991). Use of music activities in speech-language therapy.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 10*(3), 272-276.

##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부록 2> 사전·사후 검사척도

<부록 3> 프로그램에 사용한 노래 가사

##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 연구 참여 동의서

앞으로 제공될 음악치료는 여러분의 화용적 능력 및 의사소통을 향상을 위한 연구 목적의 치료 활동으로, 수집된 자료는 반드시 연구를 위한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이 연구 조사의 기록들은 반드시 연구자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록에 사용되는 여러분의 정보나 검사 결과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1. 본인은 프로그램의 절차와 평가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위의 연구자가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연구절차와 평가내용이 기록되고, 본인의 인적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연구 출판물과 학회 발표 자료는 기밀 원리에 의해 취급됨을 숙지합니다.

일 시:           년   월   일

참여자:                   (서명)

## <부록 2> 사전·사후 검사척도

### 1. 화용적 능력 평가

이름:	연령:	날짜:	검사자:
검사방법: 오른쪽에 제시된 활동들을 이용하여 화용론적 행동들을 유도한다. 적절한 반응에는 4~5점으로 평가하고, 애매모호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2~3점, 무반응이거나 적합하지 않은 반응에는 1점으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인사에 반응한다.	안녕! 잘 있었어요? 하며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다: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민다.	
① ② ③ ④ ⑤	요청한다.	원을 그리라고 하고는 펜을 제공하지 않는다: 식품점에 갔는데 사탕이 먹고 싶으면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사건/ 경험을 설명한다.	아침에 뭘 했는지 물어본다: 휴일이나 특별한 날에 대하여 치료사에게 설명하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차례를 지킨다.	치료사와 번갈아 가며 숫자세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시를 따른다.	아동에게 종이를 뒤집어서 웃는 얼굴이나 네모를 그리라고 한다: 아동에게 “귀를 만지고 나서 손뼉을 두 번 치세요” 한다.	
① ② ③ ④ ⑤	시선접촉을 한다.	다른 행동들을 평가하는 동안 아동이 정상적인 눈맞춤을 하는지 관찰한다: 아동에게 주소나 전화번호를 치료사에게 말하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따라 말한다.	다음의 문장들은 따라 말하라고 한다: 철이는 일곱 살이다. 냉장고 문이 열려있다. 생일 선물로 새 책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과업에 주목한다.	아동이 이러한 활동에 얼마나 주의 집중하는지 본다. 그림을 주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화제를 유지한다.	최근에 본 영화나 연속극 등을 이야기 하게 한다. 짜장면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역할놀이를 한다.	아동에게 선생님이 되어 보라고 한다: 음식점에 있다고	

		가정하여, 치료사는 손님, 아동은 돈 받는 사람의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순서대로 행동을 묘사한다.	이부자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식료품을 어떻게 사는지, 편지를 어떻게 쓰는지 등을 설명하게 한다: 계란을 어떻게 삶는지, 빨래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사물의 기능을 이해하고 말한다.	가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게 한다: 자로 무엇을 하는지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활동이나 대화를 시도한다.	이상하게 생긴 물건을 책상 위에 놓아두고 아동이 그것에 대해 묻는지 본다: 그 외 부모, 교사 또는 다른 아동들과 있을 때,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다.

## 2. 의사소통 태도 평정표

항 목	평 가 내 용	평 가 점 수
1. 자신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 자신있는 태도로 이야기한다.</li> <li>· 대부분 말을 할 때 자신감이 있다.</li> <li>· 내 말하는 솜씨에 비교적 자신감 있다.</li> <li>·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li> <li>· 사람들과 말할 때 불편해 하지 않는다.</li> </ul>	① ② ③ ④ ⑤
2.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경우 먼저 의사소통을 시도한다.</li> <li>·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li> <li>· 매우 사교성이 좋다.</li> <li>· 발표를 하기 위해 스스로 의사를 표시한다.</li> <li>· 낯선 사람과 말할 때 힘들지 않다.</li> </ul>	① ② ③ ④ ⑤
3.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와의 이야기나 대화에 관심을 보인다.</li> </ul>	① ② ③ ④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한다.</li> <li>· 그룹 활동에서 종종 질문을 하는 편이다.</li> <li>·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잘 하는 편이다.</li> <li>·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을 좋아한다.</li> </ul>	
4. 안정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 침착하게 이야기한다.</li> <li>·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li> <li>·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편안하게 한다.</li> <li>· 누구와 말을 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li> <li>· 말을 할 때 목소리를 쉽게 조절한다.</li> </ul>	① ② ③ ④ ⑤
5.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 그 자체에 어려움을 느낀다.</li> <li>· 친구나 선생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렵다.</li> <li>· 정말 필요한 만큼 말을 잘하지 못한다.</li> <li>· 정답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말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가끔 종종 대답하기를 포기해 버린다.</li> <li>· 어떤 단어들은 다른 단어보다 말하기가 어렵다.</li> </ul>	① ② ③ ④ ⑤

### <부록 3> 프로그램에 사용한 노래 가사

#### 1. '인사 노래' (작사 미상)

안녕 (짝짝) (        )야~ (짝짝)  
안녕 (짝짝) 반가워요 (짝짝)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함께 인사해요~ 안녕 하세요~  
\*(        )에 아동의 이름을 넣어 부른다.

#### 2. '헤어지는 노래' (작사 미상)

자~~~~ 얹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        )와 (        ,        ,        ) 선생님  
우리함께 아이 러브 유~  
\*(        )에 아동의 이름을 넣어 부른다.

#### 3. '봄 노래' (유은혜 사/ 비타500 cf 삽입곡)

따듯한 봄이 왔어요~  
봄에는 ( 봄꽃이 피고 )요~ 봄에는 ( 봄비가 내려 )요~  
봄에는 ( 봄소풍 가지 )요~ 참 (즐거워요)~  
\* 아동과 '봄'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넣어 함께 부른다.

#### 4. '아름다운 사계절' (허혜리 사/곡)

새싹이 피는 봄은 포근해요 햇빛이 강한 여름 더워요  
알록달록 단풍피는 가을은 시원해요  
하얀눈이 내리는 겨울은 추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름다운 사계절

5. '달걀을 흔들어' (작사 미상)

달걀을 흔들어~ , 달걀을 흔들어 ~  
달걀을 위로 흔들어 볼까요~ 옆으로 아래로~  
흔들어봐요~  
선생님처럼~ 선생님처럼~ 달걀을 흔들어 볼까요 ~  
선생님처럼~ 흔들어봐요~  
( )처럼~ ( )처럼~ 달걀을 흔들어 볼까요 ~  
( )처럼~ ( )처럼~ 달걀을 흔들어봐요~

6. '내가 좋아하는 것' (유은혜 사/곡)

내가 좋아하는 ( )은/는 ( )예요~  
내가 좋아하는 ( )은/는 ( )입니다.

7. '동물 친구들' (박현정 사/곡)

오리는 꺽 오리는 꺽 오리는 꺽 꺽 꺽 뒤뚱뒤뚱  
오리는 꺽 오리는 꺽 꺽 꺽  
고양이 야옹 고양이 야옹 고양이 야옹 야옹 야옹 살금살금  
고양이 야옹 고양이 야옹 야옹 야옹

강아지 멍 강아지 멍 강아지 멍 멍 멍 복실복실  
강아지 멍 강아지 멍 멍 멍

8. ‘~주세요’ (양은아, 김자영 사/곡)

(            )가/이 먹고 싶음 어떡할까?  
(            )주세요~ (            )주세요~  
(            )주세요~ (            )주세요~

9. ‘누구랑 무엇을’ (히혜리 사/곡)

어제는 누구랑 무엇을 했나요?  
어제는 (            )랑 (            )을 했어요

내일은 누구랑 무엇을 할 거죠?  
내일은 (            )랑 (            )을 할래요

10. ‘등근해가 뒹습니다’ (독일민요, 작사미상)

등근해가 뒹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먼저 이를 닦자 윗니아래 이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저쪽 꼭닦고  
머리뭉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메고 인사하고  
학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 11. '호키포키' (외국곡, 작사미상)

### 1) 원곡

다같이 오른손을 안에 넣고  
오른손을 밖에 내고  
오른손을 안에 넣고 힘껏 흔들어  
손들고 호키포키 하며 빙빙돌면서  
즐겁게 춤추자

다같이 왼손을 안에 넣고  
왼손을 밖에 내고  
왼손을 안에 넣고 힘껏 흔들어  
손들고 호키포키 하며 빙빙 돌면서  
즐겁게 춤추자

호 키 포 키! 호 키 포 키! 호 키 포 키!  
신나게 같이 춤추자

### 2) 악기연주 (유은혜 사/ 외국곡)

다같이 악기연주 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악기  
오른손에 들고서 힘껏 연주해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즐겁게 연주해

다같이 악기연주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악기

왼손에 들고서 살살 연주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즐겁게 연주해

(이번엔)

자 유 록 게! 마 음 대 로! 자 유 록 게!

신나게 같이 연주해~

\*템포, 셈여림, 연주방향등을 다르게 지시하여 연주하도록 하기

## 12. '사랑' (양은아 사/곡)

누구나 한번 사랑을 해

나도 이제 사랑을 알아

사랑 ( )것 ( )것 ( )것

음~ 사랑은 ( )것 ( )것

그런 게 사랑

## 13. '색깔느낌' (유은혜 사/곡)

색깔 느낌 노래해 보자~ ( )가 노래하자~

(파란)색을 떠올리면 (파란 하늘), (파란 나라),

그리고 (파란 바다), (파란 자동차)

\* 아동이 선택한 색으로 연상되는 사물을 넣어 노래 부른다.

## 14. '나의 하루' (유은혜 사/곡)

나의 하루 노래 해봐요 ( )의 하루 노래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먹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 활동을 합니다.)  
저녁에는 (밥을 먹고 숙제를 합니다.)  
\* 아동의 하루를 ( )에 넣어 노래 부른다.

15. '가위 노래' (양은아 사/곡)

쓱쓱 쓱쓱 쓱쓱 쓱쓱 가위로 쓱쓱쓱쓱  
종이잡고 가위들고 조심조심 쓱쓱

16. '나는 숲속의 음악가' (이요섭 사/ 독일민요)

나는 숲 속의 음악가 (조그만 다람쥐)  
(아주 익숙한 숨씨로 바이올린 켜지요  
애애앵앵앵~ x 4 ) 참 잘하지요  
\*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악기를 선택하여 노래 부르며 연주한다.

17.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외국곡, 작사 미상)

숲속 초막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섰는데  
토끼 한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지 않으면 포수가 빵 쏜대요!)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  
\* ( )안에 적절한 시k 통나리오로 개사하여 노래 부른다.

18. '꿈' (박현정 사/곡)

(            )가 하고 싶은 것 너무나도 많지만  
한가지 만 말해볼까요 (            )의 꿈은 될까요  
(            )가 되고 싶어요  
(            )가 되고 싶어요  
(            )의 꿈은 (            )죠  
예쁘고 귀한 꿈 (            )의 꿈  
열심히 노력해서 꼭 이루세요

## ABSTRACT

###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Focused on Singing on Pragmatic Ability and Communication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Yu, Eun-Hye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focused on singing on pragmatic ability and communication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rom 4th to 6th gra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Inchon city and they were assigned 5 into a experimental group and 5 into a control group. Music therapy program was conducted twice a week from March 3. to April 26, 2016. It consisted of 14 sessions. The measure the effects of the pragmatic ability assessment and communication assessment were utiliz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With the results in the pre and post test, the frequency, it was analyzed for Mann-whitney U verification, Ranked ANCOVA, and 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s by using SPSS 2.0.

As the results above, it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pragmatic ability( $F(1, 8)=11.09, p <.05$ ) and the communication( $F(1, 8)=11.99, p <.01$ ), and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the increased average with a meaningful difference( $p <.05$ ) statistically but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p >.05$ ).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usic therapy focused on singing can be an effective measurement for helping the development of pragmatic ability and communication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